

프린터 토너 절감 기술인 'Pretonsaver'

프린팅으로 기업 전체비용의 35% 절감할 수 있다

■ 개발 배경 및 토너 절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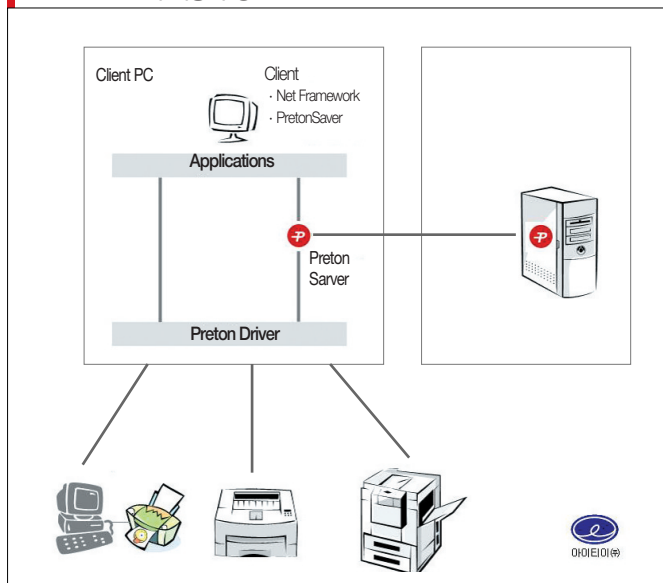
프린터 소모품 시장 매년 20~40% 성장

프리톤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프린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너/잉크를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기업 전체 비용을 떨어뜨리자는 것이다. 사실 각 기업체들은 프린팅에 필요한 토너/잉크를 소모품으로만 인식, 즉 비용부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프린팅에 필요한 토너/잉크가 기업 총매출액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프린터 소모품 시장규모가 약 3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토너 비용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프린터 소모품 시장규모는 매년 20~40%씩 급성장하고 있고(가트너 및 HP 조사), 컬러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등의 출시로 인해 이 시장은 더욱더 급성장하고 있다. 프린팅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프린터 기기 도입비용보다 프린터 유지보수 비용이 더 크고 ▲인쇄물의 양적 급증 ▲ERP 나 기업포털 등으로 인한 신규 적용업무가 급증 ▲프린터 사용 환경이 과거 15인당 1대에서 4인당 1대로 증가 ▲고품질 프린터 등장 및 그래픽형 문서 선호로 인한 소모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매년 프린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린트 비용, 종업원 당 연 30만원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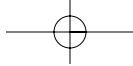
특히 컬러 프린터 토너의 경우 흑백에 비해 장당 3~4배 가격이 더 들어가고, 복합기는 일반 프린터에 비해 30% 이상 토너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각 종업원 당 연간 프린터 비용으로 평균 약 3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법률회사, 병원, 보험사, 공공 민원 서비스 등의 기관들은 프린터 량이 그 어느 업종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프린팅 비용이 매년

PretonSaver의 적용 구성도



출처 : 프리톤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터 사용자들은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단순히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을 추가 지불할 뿐이다. 프린팅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지불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따라서 프린팅 비용을 줄일 경우 회사의 이익에 직결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토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토너를 사용하지만 재생토너의 경우 품질의 편차가 심하고, 프린터에 나쁜 영향을 주어 프린터 공급업체가 유지보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 예로 최근 한국에서는 캐논사가 토너케이스 공급업체인 삼성전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생토너의 사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프린터는 컴퓨터와 맞물려 사용하는 필수 도구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용자들은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많지만 프린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인이 아닌 기업체들은 더욱 관심도가 낮다. 특히 프린터를 통한 프린팅 비용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 밖에 있다. 그러나 각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린팅 비용이 연간 총매출액의 1~3%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종업원 당 프린팅 비용이 연간 30만 원 이상 든다고 한다. 컬러 프린터는 흑백보다 3~4배 이상 더 경비가 든다고 한다. 법률회사, 병원, 보험사, 공공민원서비스 등의 기업이나 기관들은 그 어느 산업체보다 프린터 량이 훨씬 높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점, 즉 프린팅을 통한 경비를 크게 절감(약 35%)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고객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이스라엘 프린팅 전문업체인 프리톤(Preton)사가 개발 공급하고 있는 'PretonSaver' 이라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제품은 국내 디스트리뷰터이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아이티이(주)를 통해 한국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 이미 이 제품은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현대 아산병원, 서울대 분당 병원 등의 10여개 사이트에 공급됐고,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도 받고 있다. 세계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프린팅 경비절감 소프트웨어인 'PretonSaver'는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사용돼 경비절감 효과를 거두는지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 제품 개요

'Preton'은 프린팅 전체 비용절감을 위해 ▲PCS (Printing Cost Saving) 알고리즘 ▲프린팅 자산 관리 ▲프린터 정책 관리 등의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 기능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PCS (Printing Cost Saving) 알고리즘

PCS 알고리즘 기술은 세계특허를 획득했고, 프린팅 내용을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 등으로 분류해 각 부분별로 3~6단계 절약

률을 적용하여 인쇄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다. 이 같은 방식은 세계 유일의 기술이며, 인쇄 품질을 최적화해 재생토너 및 프린터의 절약모드 사용 시 발생하는 품질저하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PCS 알고리즘 기술로 25~45%까지 토너를 절약할 수 있다.

2. 프린팅 자산 관리

기업 내의 모든 프린팅 작업에 대한 로우 데이터(low data)를 자동으로 수집해 ▲사용자 별 ▲부서별 ▲프린터 별 인쇄 양 및 인쇄 문서의 종류, 총 절약 비용 등을 제공한다. 이를 근거로 프린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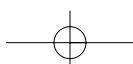
프리톤은 어떤 회사인가?

프린팅 기술 세계 최고프리톤사는 지난 2003년 5월 설립해 3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프린팅 기술은 독보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프린팅 전문 벤처 기업이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에 17개의 디스트리뷰터와 3개의 OEM 공급사를 확보하고 있다. 프리톤사는 각종 프린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너/잉크를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전체경비의 35%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는 세계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토너 절약 기술인 '알고리즘'은 인쇄물을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 등 세 개로 분류시켜 각 컴포넌트 별로 어떤 부분에 잉크를 덜 뿌릴지 여부를 인식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회사의 토너 절감 기술은 프린터 별, 애플리케이션 별, 사용자 별로 세팅이 가능한 기업 전체 관리 툴을 제공해 준다. 즉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른 사용자치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무부는 이미징 프린팅을 못 하도록 하거나 한 달에 1만장 이상을 프린팅을 못하도록 하고, 또한 어느 특정 문서-기밀문서는 프린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따라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쟁사 제품들은 토너 절감 기술(약 15% 정도) 밖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매월 10% 이상 성장

프리톤 제품은 또 인쇄물(Document)의 내용 파악은 물론 엑셀이나 아래 한글 등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로 프린터를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프린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나 사 같은 제품은 절약 기능은 없고, 어떤 것으로 인쇄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톤이 매월 10% 이상 급신장하고 있고, 전 세계 프린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프리톤 사는 아·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아이티이(주)를 디스트리뷰터로 선정, 지난 2월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톤사가 아·태지역 가운데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것은 일본인들보다 열린(Open) 마음을 갖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아이티이와 같은 믿음만한 협력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리톤사는 한국시장 진출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싱가포르와 호주에 각각 디스트리뷰터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프린터 소모품 시장규모는 매년 20~40%씩 급성장하고 있고(가트너 및 HP 조사), 컬러 레이저 프린터 및 복합기 등의 출시로 인해 이 시장은 더욱더 급성장하고 있다. 'Preton'은 프린팅 전체 비용절감을 위해 ▲PCS (Printing Cost Saving) 알고리즘 ▲프린팅 자산 관리 ▲프린터 정책 관리 등의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이티이(주)는 어떤 회사인가?

프리톤의 한국 디스트리뷰터인 ((주), 대표이사 남기현) 지난 95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문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자원관리 및 경비절감 솔루션인 SA/390을 비롯해 OLTP 기능을 이용해 n-tier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Magnax 등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다. Magnax 솔루션은 특허청에 특허 등록까지 했고, 2001년에는 다계층 개발 도구인 GenManager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제한 및 프린터 재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 기능만으로도 총 프린팅 관련 비용을 10~15%이상 절감할 수 있다.

3. 프린터 정책 관리

프린팅 자산관리 기능을 바탕으로 기업의 프린팅 정책을 수립해 기밀문서의 출력 제한, 개인용도 문서 출력 금지 등 보안 및 기업자산 유용 방지를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 기능은 무제한적인 출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기업이 조정 가능한 출력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논리적 구성

PretonSaver에 의한 프린팅 TCO 절감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으로 완성된다.

1. 프린팅의 최적화(특허출원 기술) : 프린트 업무(Job)을 분석해 토너/잉크의 양을 최적화 한다. 환경에 따라 25~45% 절감된다.
2. 프린팅 자산 추적 가능 :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린트 Job을 로깅/추적/분석해 다양한 사용 패턴과 리포팅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적재적소 프린팅을 통해 프린터 관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프린팅 정책 관리 : 프린터별, 사용자별, 그룹별 프린팅 정책부여로 출력물을 관리 할 수 있다.

■ 주요 특징

PretonSaver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쇄 품질을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품질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므로 프린터에 손상이 없고, 따라서 유지보수에 전혀 부담이 없고, 토너를 적게 사용하도록 하여 프린터 수명을 연장시킨다.
- 실질적인 토너 절약을 통해 자산 관리 및 정책 수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 여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오작동 시에도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업무에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 제품의 우수성(경쟁적 우위)

PretonSaver는 그 어느 경쟁제품보다 경쟁적인 우수성을 갖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PCL과 Post Script를 전부 지원하므로 잉크젯 및 각종 레이저 프린터들을 전부 지원한다.
- 프린터 별, 문서 별, 사용자 별로 품질을 달리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 자동으로 모든 프린터 자산, 사용자, 문서종류 등이 등록되고 설치가 용이하여 관리가 용이하다.
-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3년여에 걸쳐 개발된 세계 특허 제품이다.

■ 마케팅 및 기술 지원

국내 총판이자 디스트리뷰터인 아이티이(주), 대표이사 남기현)는 고객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를 직접 방문, 일정량을 프린터 해 토너가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를 직접 확인시켜주는 영업정책 추구하고 있다. 아이티이는 PretonSaver 공급을 위해 6개의 대리점(비즈인프라, 위어피어, 제이에스정보, 엔비컴, 액티브넷 등)을 확보했고, 각 대리점은 설치, 유지보수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프라를 갖춰 놓고 있다. 기술지원은 대리점이 1차 지원하고, 2차는 아이티이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본사와는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해 놓고 있다. **CW**